

불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17:45-47, 누가복음 7:9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해답을 얻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능력과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 받고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25차 선교대회에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 제자가 있어야지 이 제자를 보낼 수 있다. 또한 70 지역에서 70 제자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70 나라를 살리려면 70 종족을 만나야 한다. 와있는 다민족, 전 세계의 다민족의 한 사람을 살리면 그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 나라를 살릴 램넌트로, 제자로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 그 분야를 살릴 것인지, 여러분이 주역으로 기도해야 한다. 지금부터 그 바탕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RUTC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살리라고 부르셨다. 복음가진 교수, 기업인이면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70 제자를 살려서 70 지역을 살려야 한다. 70 종족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 70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이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이다. 이 세상이 사탄의 문화로 흘러갈 때 우리는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이다. 이 사람이 램넌트이다. 램넌트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다. 아무 것도 문제될 것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온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이다. 1절만 봐도 한나의 신앙을 볼 수 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다. 아무 것도 염려할 것 없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할 것을 하게 되어있다. 복음으로 결론내고 그 속에서 나머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복음과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 욕심, 내 목적, 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결론낸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

고 칭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하는 99명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생명운동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3명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7장은 사무엘 중심이고, 8장에서 15장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16장에서 31장은 다윗 중심이다. 그리고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주신 절대목표는 믿음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1. 첫 번째로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첫 번째 불신앙적인 인물은 엘리 제사장이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줄로 알고 한나를 꾸짖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종교지도자였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4절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나름대로 훌륭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복음 모르는 목사, 착한 목사였다. 자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종교인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모르는, 참 복음을 제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종교지도자였던 것이다.

(2) 또 다른 불신앙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이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의 자녀였지만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가정, 교회, 현장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현장을 정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3) 다음은 사무엘의 두 자녀이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역대상 6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만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들은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을 알지 못했다.

(4) 그리고 사무엘상에 등장한 인물 중 가장 잘못된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울 왕은 용모가 대단히 준수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좁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여게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많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일에 오지 않자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의 조급함과 교만한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그 뿌리를 뽑고 바꾸는 것은 바로 강단말씀을 통해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고 순종,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다.

② 또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무엇이든지 거역하는 체질이었고 완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다.

③ 이번 아니라 사울 왕은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④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다.

⑤ 결국 사울 왕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다. 영적인 문제의 끝을 보여준 것이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결국 사울 왕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다.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다.

2. 두 번째로 사무엘상에 등장한 사람들 중 복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인물은 한나이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던 서러움과 욕심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드러 성전에서 램넛으로 키웠다.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겠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낳지 않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램넛으로 바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2) 두 번째의 복음의 사람은 사무엘이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복음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직접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

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결국 여호와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

(3) 세 번째의 복음의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였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4장 7절에 보면 굴 안으로 들어본 사울 왕을 살려 주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던 도중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였지만 살려주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12절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4) 네 번째로 사무엘상에 등장한 또 한 명의 복음의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왕좌를 빼앗기는 것이 되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윗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려 하였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겠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 요나단은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사람에게 대한 사랑(사명자, 램넛)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닮아야 하겠다.

결론으로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 그리스도 굳게 믿는 것이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참된 모든 문을 여신다. 속으면 안 된다. 머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다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 중에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같은 제자를 찾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오직복음과 오직 믿음만 선택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과 기도제목은 성취될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조금만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버려도 절대불가능이 절대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나의 현장을 적어보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세우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